

2007년 등급판정결과 소부문 최우수상 시례한우농장 - 이상철 농가

부산경남지역본부과장이 준걸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에 소재한 시례한우농장(대표 이상철)은 현재 한우기세 약 12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상시 사육두수 약 1,500두, 연간 약 600두 정도의 비육우를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인 부룡산한우회영농조합법인(브랜드명 : 부룡산영한우) 회원농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상철 대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개최한 '2007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표창'에서 소부문 최우수 농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시례한우농장은 전통적으로 암소 고남육을 선호하는 울산지역에 위치한 이유로 한우 암소 비육에 비중을 두었으나, 고남육 생산에 남다른 애착과 비전으로 부룡산한우회영농조합에 가입 후 한우기세의 비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양관리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료에 항생제 및 화학적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장내 사료매합실 발효기에서 발효시킨

사료를 급여프로그램에 맞춰 급여하고 있다. 송아지에게 충분한 건초를 급여하고, 비육우 단계에서는 발효사료를 무제한 급여하는 사양방식으로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진학발효사료 모임'(회장 김창현)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출하축의 등급판정결과 분석을 통해 얻은 모반사항을 발효사료 제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사양관리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발효사료에 대한 자부심과 확고한 사양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향후방향

2007년 등급판정결과 한우부문 우수농가 선정은 계기로 발효사료에 대한 노하우를 비육우농가에 홍보·모금할 계획에 있다. 또한 이 대표는 향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신지식 습득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고급육 생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